

## 아동 친화적인 도시에 대한 부모 및 사회복지사의 인식

홍승애(Hong, Seung Ae)<sup>1)</sup> 이재연(Lee, Jae Yeon)<sup>2)</sup>

### 요약

아동 친화적인 도시(Child Friendly Cities: CFC)는 도시가 아동의 성장환경에 주는 부정적인 측면을 극복하고 아동의 권리와 삶의 질을 증진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제사회의 운동이다. 본 연구는 서울시의 아동 친화성(Child-Friendliness)에 대한 부모와 사회복지사의 인식 조사를 통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 첫째, 부모와 사회복지사는 아동이 생활하고 있는 도시환경의 '아동 친화성'에 대해 비교적 부정적으로 인식하였다. 둘째, 경제수준이 높은 지역에 살며, 아동기 자녀를 둔 부모의 긍정적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사회복지사는 경제수준이 높은 지역이 아동을 위한 물리적·사회적 환경이 보다 잘 조성되어 있다고 인식하였으며, 아동기 아동을 위한 사회적·물리적 환경과 서비스 지원이 보다 잘 조성되어 있다고 인식하였다.

이에 따라 경제적 수준 및 그에 따른 기반시설, 공공시설 수준의 차이는 아동 친화적인 지역사회가 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으며, 특정 연령대에 집중된 정책에 대한 제고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복지제도를 넘어선 종합적인 도시계획으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아동 권리 존중의 가치형성이 우선시 되어야 하며, 아동·청소년의 참여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의 상호협력이 중요하겠다.

**주제어 : 아동 친화 도시, 아동 친화 지역사회, 아동 권리, 도시화**

1) 숙명여대 아동복지학과 박사과정

2) 숙명여대 아동복지학과 교수

## I. 서론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인구수의 감소와 더불어 다양한 사회변화로 인해 최근 아동정책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종래의 요보호 아동 위주의 소극적 아동정책에서 모든 아동의 행복과 권리를 증시하는 보편적 아동정책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아동정책 핵심은 아동권리 보장을 통해 역량을 갖춘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며, 아동의 성장환경 개선을 통해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아동의 삶의 질은 아동의 개인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의 복합적인 작용에 따라 결정되며 특히 정책적 차원에서 조성된 사회적·물리적 환경에 큰 영향을 받는다(김선자·김경혜, 2008). 즉, 아동의 삶의 질은 아동의 개인적 특성, 가족 내 환경 특성에 따라 영향을 받지만 아동이 일상 생활하는 지역사회환경에도 큰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현재 아동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환경은 지난 수세기 동안 급속도로 진행된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라 안전하지 못하며 오히려 발달을 저해하며 아동의 삶의 질을 떨어트리는 위협적인 공간이 되어가고 있다(Riggio, 2002). 혼잡한 도로, 무질서한 교통체계, 증가하는 범죄와 폭력, 좁아진 골목길, 차로 가득한 보행거리, 도시 지역 주민의 무관심과 익명성 등으로 인해 아동은 걸어서 학교에 가거나, 친구 집을 방문하거나, 가까운 거리를 여행하거나, 부모님의 심부름을 하는 등 혼자서 이동하는 매우 기초적인 활동조차 제한받고 있다. 실제로 호주 조사에 따르면, 1990년에는 10세 아동이 혼자서 학교에 가거나, 친구들과 짧은 여행을 떠나는 비율이 80%이었으나 2000년에는 단지 37% 아동만이 혼자서 이동하는 자유의 기회를 가졌다(Tranter, 2006). 또한 아동의 통학 수단을 비교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1974년에는 자가용 이용은 23%, 걸어서 이동은 67%, 자전거 이용은 3%, 대중교통 이용은 9%로 조사되었으나, 2005년에는 자가용 이용은 89%, 걸어서 이동은 9%, 자전거 이용은 2%, 대중교통 이용은 3%로 조사되었다(Peddie & Somerville, 2005). 30년 사이에 자가용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비율은 4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걸어서 통학하는 아동의 비율은 7배 가까이 감소한 것이다. 이러한 제한적인 이동으로 인해 아동은 낯선 사람과 교류하고, 환경을 탐색하며, 도시와 지역사회 문화와 자원들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지 못하는 것이다(Chawla, 2002). 이러한 현상은 도시의 규모와 도시화 정도, 그리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 근본적인 양상은 똑같다(UNICEF, 2001).

Malone(2007)은 현재의 도시 아동을 ‘거품에 쌓여 있는 세대(Bubble-wrapping generation)’ 라고 표현 하면서 도시의 환경 변화로 인해 부모가 점점 아동을 거품에

돌돌 말듯이 과잉보호하게 만든다고 지적하였다. 즉, 부모의 불안과 두려움 증가는 지나치게 아동의 야외 활동에 제약을 가하고 있으며, '좋은 부모'에 대한 왜곡된 사회적 압박으로 인해 부모들은 자녀를 자가용으로 통학시키며, 보다 더 좋은 학교를 보내기 위해 장거리 운전을 다하지 않고, 유료 학습 프로그램과 실내 놀이 시설을 찾아 시설에서 시설로 자녀를 이동 시키고 있다(Malone, 2004; Tranter & Pawson, 2001). 부모와 성인의 과잉보호는 도시의 유해환경 속에서 아동이 희생되는 것을 일차적으로는 '보호' 할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아동의 사회적·정서적 성장 발달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UNICEF, 1996). '보호' 위주의 소극적 활동은 결국 아동이 스스로 무엇인가 해낼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자신감 발달이나 자아존중감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 아동이 새로운 환경에 직면하였을 때 불안과 스트레스가 매우 높게 발생되어 심리·정서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Lang & Deitz, 1990). 한편 부모로부터 방임된 저소득층의 아동들은 각종 교통사고, 폭력과 범죄, 환경오염 등 수많은 위험요소에 노출되어 있으며, 부족하고 열악한 놀이 공간 속에서 또래와 지역주민과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지 못하는 환경 속에서 살고 있다. 실제로 가구소득이 낮은 곳에 사는 아동일수록 교통 및 화재사고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UNICEF, 2001).

이처럼 도시화되고 빈곤화 되고 있는 지역사회 안에서 아동을 보다 긍정적으로 성장·발달시키고 아동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조건으로 국제사회와 많은 연구자들은 지방정부와 지역주민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UNICEF, 2001). 이러한 배경 아래 국제사회는 유니세프를 중심으로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 즉 아동 친화적인 도시(Child Friendly Cities: CFC) 운동을 벌이고 있다. 유니세프는 아동 친화적인 도시에 대해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 지방정부(local governance)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도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UNICEF, 1996). 아동 친화적인 도시 운동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념과 원칙에 기초하고 있으며 협약을 '온전히(fullest)' 이행하는 과정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유니세프는 특히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하였는데 지역 사회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단위이며, 중앙정부의 변화도 이끌어 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단위이기 때문이다(UNICEF, 1996). 현재 이탈리아, 영국, 브라질, 필리핀, 방글라데시, 스페인, 이란, 프랑스, 요르단 등 전 세계적 200개가 넘는 도시에서 실천되고 있으며, 각 지역 사회의 특성과 여건에 맞게 아동 최우선의 관점이 반영된 도시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고 있다. 이태리 정부는 '아동·청소년을 위한 행동계획'을 시행하였으며, 이 행동계획

을 실행하기 위해 이태리 법령 자체를 재·개정 하였다(UNICEF, 2005a). 스페인은 아동 의회를 신설하고, 아동이 정치적인 힘을 갖는데 역점을 두었으며 도시 전반에 걸쳐 아동정책을 새롭게 탄생시키고 있다(Marco, 2002). 필리핀은 개발도상국이지만 유니세프와 공조하여 '빈곤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아동의 성장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UNICEF, 2005b). 필리핀의 경우 빈곤한 소규모 지역사회에서 시작하였지만 이후에는 국가적인 운동으로 확산되었다(UNICEF, 2005b).

현재 우리나라도 도시화와 빈곤화에 따른 아동의 성장환경이 매우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서울시는 짧은 기간 동안 압축 성장을 겪으면서 개발위주의 도시계획과 정책으로 인해 지속가능하며 사람이 중심이 되는 도시공간을 조성하지 못한 한계점이 지적된다(맹다미, 2009). 이에 따라 아동의 성장환경도 정책의 우선순위에 밀려 아동의 욕구와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초등학생 13,175명을 대상으로 겨울방학 동안 하는 일들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하루 일과 중 컴퓨터 사용이 23.9%로 가장 많고, 공부하기 21.1%, TV 시청이 13.0%의 순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들의 평균 놀이 활동 참여시간은 평일의 경우 3.19시간이며 그 중 실내 활동 시간이 2.58시간으로 나타났다. 주말 및 휴일의 경우 평균 6.16시간 중 실내 활동 시간은 4.24시간으로 나타나 평일, 주말 및 휴일 모두 실외 활동 보다는 실내 활동 시간이 더 많은 것을 나타냈다(김영진·김영환·김영선, 2007).

또한 서울시 아동의 성장환경은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요소가 가정과 학교 및 지역사회에 산재되어 있으며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위한 양육 및 교육환경도 구축되어 있지 않다. 특히 아동복지사업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에서 특성을 반영한 아동정책과 서비스를 자율적으로 발전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앙정부의 지침과 안내서에 따라 획일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상황이며, 자치구의 재정자립도와 기반시설, 공공시설에 따라 생활환경 격차가 많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맹다미, 2009; 이재연 외, 2008).

따라서 아동의 성장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의 특성과 욕구가 반영된 아동 친화적인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주양육자이자, 아동이 경험하는 생활환경을 가장 많이 공유하며 지역사회로부터 다양한 지원과 정보를 제공받는 부모의 인식이 조사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 주민의 생활실태와 주민과 아동의 필요한 욕구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전문가인 사회복지사의 인식조사도 이루어져야 한다. 부모와 사회복지사 모두 지역사회에서 아동을 위한 강력한 옹호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의견과 인식 조사는 아동 친화적인 도시를 수립하는데 기초자료

를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도시와 지역사회 환경에 대한 부모 및 사회복지사의 인식을 알아보고자 아동의 연령과 지역에 따라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지역사회 문제와 욕구를 진단할 수 있으며 이를 기초로 향후 아동 친화적인 환경 구축을 위한 구체적 실천 방향을 제언할 수 있을 것이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서울시 3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총 12개 교육기관의 부모 508명과 총 9곳 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사 11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의 구분은 유니세프의 'Child Friendly Community Assessment'에 따라 분류하였다. 따라서 부모 집단은 자녀의 연령을 영아기(만 2세 미만), 유아기(만 4~5세), 초등학교 저학년(만 7세~9세), 초등학교 고학년(만 10세~12세), 청소년기(만 14~18세)로 구분하여 각 연령대별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의 거주 지역은 각 자치구별로 같은동에 소재한 교육기관을 선정하여 어린이집 2곳의 만 2세반 2학급, 만 4~6세반 2학급, 초등학교 1곳의 1~4학년 2학급, 6학년 2학급, 중학교 1곳의 2학년 2학급, 고등학교 1곳의 2학년 2학급을 임의로 선정하여 해당 학급 영유아, 아동, 청소년의 부모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부모 집단 총 508명 중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는 171명(33.4%), 아동기 자녀를 둔 부모는 167명(30.4%),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는 170명(29.8%)이다. 어머니 응답은 392명(77.1%), 아버지 응답은 116명(22.8%)이다.

사회복지사 집단은, 각 자치구별로 같은동에 소재한 사회복지관 3곳을 임의로 선정하여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총 114명 중 여자 사회복지사는 68명(59.6%), 남자 사회복지사는 46명(40.4%)이다. 근무년수는 2년 미만이 10.8%, 2~5년이 48.6%, 5~10년이 38.5%, 10년 이상이 2.1%이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조사 지역은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재정자립도를 상(8개 자치구)·중(9개 자치구)·하(8개 자치구)로 구분하여, 상·중·하 내에서는 인구, 주거환경, 산업경제, 기반시설, 공공시설부문 등 총 26개 지표를 통해 생활환경 특성을 분석한 자료를 기반으로 각 1곳을 선정하였다(맹다미, 2009·이재원, 2006).

&lt;표 1&gt; 부모 및 사회복지사의 일반적 특성

						N(%)
		영유아기 부모	아동기 부모	청소년기 부모	전체	사회복지사
성별	남	7(4.0%)	59(34.7%)	50(29.9%)	116(100%)	46(40.4%)
	여	164(96.0%)	111(64.9%)	117(70.0%)	392(100%)	68(59.6%)
지역	경제수준 상위 구	57(33.3%)	56(34.1%)	58(33.5%)	171(100%)	38(33.3%)
	경제수준 중위 구	56(32.7%)	55(32.9%)	56(32.9%)	167(100%)	39(34.2%)
	경제수준 하위 구	58(33.9%)	59(35.2%)	53(36.5%)	170(100%)	37(32.4%)
합계		171	170	167	508	114

‘경제수준 상위 구’로 선정한 곳은 인구의 사회 경제적 수준이 높을 뿐 아니라 주거 환경 및 기반 공공시설의 수준 또한 매우 양호한 특성을 가진 자치구이며, ‘경제수준 중위 구’로 선정한 자치구는 주거수준은 비교적 양호하나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지역이며, 1인당 도시공원 면적과 도로교통 기반시설이 낮고, 문화·복지·의료·교육 시설의 추가적인 공급이 필요한 특성을 가진다. ‘경제수준 하위 구’로 선정한 자치구는 낮은 경제적 수준과 기반, 문화 시설 등이 부족하고, 또한 주택과 학교 건물의 노후도가 높은 편이다(맹다미, 2009).

‘경제수준 상위 구’ 내에서는 가구소득이 가장 높고, 아동·청소년 인구 비율이 가장 높으며, 공공시설(도서관, 복지관, 문화센터 등)비율이 높은 동을 선정하여 어린이집 2곳과 초·중·고 각 1곳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경제수준 중·하위 구’에서는 교육복지우선투자학교로 선정된 동의 초·중학교와 인근 어린이집, 고등학교 각 1곳을 대상으로 하였다.

## 2. 측정도구

아동이 성장·발달 하고 있는 도시 환경에 대한 부모 및 사회복지사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서 유니세프(2010)가 개발한 ‘아동 친화적인 지역사회 척도(Child Friendly Community Assessment)’를 본 연구자가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번안한 내용 및 용어가 우리나라 부모 및 사회복지사에게 적용함에 있어 적당할지 검증하기 위해 영어와 한국어에 모두 능통한 박사 2인, 어린이집 원장 1인, 초·중학교 교사 2인에게 그 타당성을 의뢰하는 과정을 거쳤다. 또한 척도의 내적 신뢰도를 측정

한 결과 영유아 부모의 경우 Cronbach  $\alpha$  .91, 아동 부모의 경우 Cronbach  $\alpha$  .93이며, 청소년 부모의 경우 Cronbach  $\alpha$  .90, 사회복지사의 경우 Cronbach  $\alpha$  .91이며, 하위영역별 신뢰도도 모두 비교적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표 2> 척도의 구성

영역	내용	문항수 및 신뢰도			
		영유아 부모	아동 부모	청소년 부모	사회 복지사
가정환경 (Home Environment)	주거공간의 밀집도, 안전한 가정 환경, 난방·전기시설, 가정의 물리적 환경, 집주변 유해환경 등	9 (0.82)	10 (0.91)	10 (0.89)	10 (0.87)
건강과 사회서비스 (Health and Social Services)	아동 발달, 영양, 건강에 대한 가이드, 부모교육, 부모 상담, 필수예방접종 지원, 근거리에 응급 의료 서비스 지원, 보육지원 센터 등	9 (0.80)	8 (0.81)	10 (0.82)	12 (0.83)
	청소년부모>에이즈 예방 교육, 에이즈 상담 센터, 피임 기구 구입 여부 사회복지사>아동보호센터, 에이즈 상담센터 설치 여부, 아동 발달센터 설치 여부				
교육자원 (Educational Resources)	학교의 물리적 환경, 학부모의 참여, 교과과정 만족, 아동권리 교육, 환경보호 교육, 교사와의 신뢰 및 유대감, 또래간의 차별 및 폭력, 다문화 아동에 대한 차별, 학교 운영위원회 참여, 신체적 체벌정도, 아동의 의견 존중 등	17 (0.93)	25 (0.92)	26 (0.95)	28 (0.90)
	청소년부모>직업프로그램 여부 추가 사회복지사>교육기관의 근접성 여부, 성교육 여부, 직업프로그램 제공 여부				
안전과 보호 (Safety and Protection)	교통체계, 유해환경, 안전한 통학로, 범죄 및 폭력, 아동 보호 기관 설치, 아동보호를 위한 지역주민의 노력 등	8 (0.91)	13 (0.93)	15 (0.95)	15 (0.92)
	청소년부모 및 사회복지사> 유해한 약물 판매 여부, 청소년 폭력예방 센터 여부 추가				
일, 놀이·여가 (Work, Play& Recreation)	야외놀이 공간, 친구와의 교류, 자연독지 공간, 문화행사 및 각종 프로그램 참여, 여가활동 참여, 신체장애아의 놀이 장소 조성 등	0	9 (0.90)	8 (0.84)	9 (0.88)
지역사회 유대관계 (Community Relationships)	지역사회에서 아동을 대하는 태도, 지역주민간의 유대감, 외국인에 대한 차별, 지역사회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 지역사회 정책 참여, 아동권리 홍보와 교육, 아동권리 이행 정도 등	7 (0.82)	10 (0.92)	10 (0.95)	10 (0.93)
합계		50 (0.91)	75 (0.93)	79 (0.90)	84 (0.91)

척도의 영역은 부모 및 사회복지사용의 경우 가정환경, 건강과사회서비스, 교육자원 등 총 6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유아 부모용의 경우 일·놀이·여가 1개 영역이 제외되어 있다.

설문지 구성은 부모용의 경우 자녀의 연령에 따라 한 부모가 각각의 설문지에 응답하는 방식이지만, 사회복지사용의 경우 한 사회복지사가 모든 연령대의 아동에 대해 다중 응답하는 방식이다.

설문지 문항은 영유아 부모용은 50문항, 아동 부모용은 75문항, 청소년 부모용은 79문항, 사회복지사용은 84문항이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0점)', '가끔 그렇다(1점)', '대체로 그렇다(2점)', '언제나 그렇다(3점)'까지 리커트식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균 점수의 국제 간 비교를 위해 유니세프의 4점 척도인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지역사회 환경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 하는 것이며, 보다 아동 친화적인 지역사회로 볼 수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도시 환경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이며, 보다 아동 친화적인 도시와 지역사회로 볼 수 있다(UNICEF, 2010).

### 3. 연구 절차 및 자료 분석

본 조사에 앞서 문항에 대한 내용 및 용어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시에 소재한 어린이집 만 6세반 1개 학급 10명의 부모와 초등학교 5학년 1개 학급 10명의 부모, 중학교 2학년 1개 학급 10명의 부모를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 조사 내용을 토대로 대상 부모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과 한국 실정에 맞지 않는 용어를 수정하였으며 어린이집 원장 1인과 초·중등 교사 2인과 토의를 통해 최종 문항을 작성하였다.

본 조사는 서울 소재 총 12개 교육기관(어린이집·초·중·고등학교)의 부모 520명과 사회복지관 총 14곳의 135명의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어린이집 및 초·중·고등학교는 직접 방문하여 설문지를 회수하였으며, 사회복지사의 경우 우편과 이메일을 통해 회수하였다. 부모의 경우 총 520명에게 설문을 배포하였으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508명의 응답을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사회복지사의 경우 총 135명에게 배포하였으나, 누락되거나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하고 총 114명의 응답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통해 척도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산출하였으며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인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 및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그리고 지역별, 아동의 연령 별로 부모와 사회복지사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이원분산분석(two-way ANOVA)을



실시하였다.

### III. 결과분석

#### 1. 아동 친화적인 도시에 대한 부모의 인식

도시 환경에 대한 부모의 전체 인식 점수는 1.72점(전체 10.34/6= 1.72)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가 자녀들이 생활하는 도시 환경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한다고 볼 수 있는 ‘대체로 그렇다’인 2점을 기준으로 볼 때 비교적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즉, 부모들은 아동 친화적인 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부모의 거주 지역 및 아동연령에 따른 평균과 표준편차

구분			가정환경	건강과 사회 서비스	교육자원	안전과 보호	지역사회 유대관계	일·놀이· 여가	합계
지역	아동연령	N	M(SD)	M(SD)	M(SD)	M(SD)	M(SD)	M(SD)	M(SD)
경제수준 상위구 (a)	영유아(a)	38	2.86(0.26)	2.12(0.51)	2.12(0.60)	1.90(0.69)	1.70(0.80)	-	9.66(1.14)
	아동(b)	38	2.89(0.25)	2.03(0.47)	2.50(0.34)	2.18(0.49)	2.18(0.56)	2.12(0.60)	14.41(2.92)
	청소년(c)	38	2.90(0.13)	1.96(0.36)	2.08(0.61)	1.40(0.62)	1.96(0.83)	2.08(0.61)	10.54(2.03)
	합계	114	2.89(0.21)	2.02(0.44)	2.18(0.58)	1.81(0.68)	1.99(0.75)	2.10(0.60)	11.88(3.10)
경제수준 중위 구 (b)	영유아(a)	39	2.47(0.52)	1.83(0.55)	2.25(0.44)	1.08(0.64)	1.17(0.66)	-	7.83(1.86)
	아동(b)	39	2.58(0.44)	1.71(0.54)	1.76(0.54)	1.91(0.71)	1.51(0.61)	1.51(0.77)	12.56(2.74)
	청소년(c)	39	2.79(0.29)	1.82(0.41)	1.51(0.77)	1.03(0.61)	1.49(0.78)	1.76(0.54)	9.35(2.13)
	합계	117	2.64(0.42)	1.78(0.50)	1.76(0.68)	1.39(0.78)	1.44(0.70)	1.64(0.67)	10.31(3.01)
경제수준 하위구 (c)	영유아(a)	37	2.13(0.60)	1.76(0.65)	2.35(0.35)	1.23(0.51)	1.26(0.43)	-	7.87(1.75)
	아동(b)	37	2.32(0.56)	1.38(0.64)	1.70(0.48)	1.58(0.67)	1.28(0.75)	1.27(0.66)	9.84(2.50)
	청소년(c)	37	2.36(0.54)	1.59(0.36)	1.27(0.66)	1.03(0.44)	1.53(0.69)	1.70(0.48)	8.55(1.95)
	합계	111	2.26(0.58)	1.54(0.57)	1.66(0.68)	1.30(0.61)	1.37(0.68)	1.47(0.62)	8.93(2.28)
합계	영유아(a)	114	2.55(0.52)	1.90(0.59)	2.37(0.39)	1.40(0.70)	1.38(0.68)	-	8.44(1.87)
	아동(b)	114	2.59(0.54)	1.70(0.62)	1.85(0.57)	1.88(0.67)	1.65(0.75)	1.63(0.77)	12.20(3.31)
	청소년(c)	114	2.62(0.46)	1.80(0.41)	1.63(0.77)	1.16(0.59)	1.67(0.80)	1.85(0.57)	9.47(2.19)
	합계	342	2.59(0.50)	1.78(0.54)	1.87(0.68)	1.45(0.73)	1.60(0.76)	1.74(0.68)	10.34(3.06)

각 하위 영역별로 살펴보면, 가정환경 영역(M=2.59)을 가장 긍정적으로 인식하였으며, 교육자원(M=1.87)영역, 건강과사회서비스(M=1.78)영역, 일·놀이·여가(M=1.74)영

역, 지역사회유대관계(M=1.60)영역 순으로 긍정적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안전과보호(M=1.45)영역을 가장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들은 자녀들이 거주하는 주거환경 및 집 주변 물리적 환경이 가장 잘 조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였으며, 학교의 물리적 환경, 교과과정, 교사와의 유대관계, 교육기관에의 학부모 참여, 아동 간의 차별 및 폭력, 학교에서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는 정도 등 교육과 관련된 제반여건에 대해서도 다른 영역에 비해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또한 지역사회로부터 제공 받는 건강·보건서비스와 부모교육 및 부모상담 서비스 등 자녀의 성장발달을 위한 서비스 인프라도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다고 인식하였으며, 집 근처 혹은 지역사회 내에서 아동이 놀이를 즐길 수 있는 공간과 시간 그리고 자연을 접할 기회 등도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하였으며, 지역사회 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의 참여 및 노력, 지역주민간의 유대감, 지역주민의 아동의 권리를 존중 하는 태도,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참여 등도 비교적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도시와 지역사회 내 교통체계, 범죄와 폭력, 유해환경, 아동보호기관 설치 유무 등 아동의 안전과보호를 위한 제반여건이 가장 미흡하다고 인식하였다.

## 2. 지역과 아동연령에 따른 부모의 인식

부모의 지역 및 아동연령에 따른 이원분산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경제수준 상위 구(M=11.88, SD=3.10)에 거주하는 부모의 인식이 가장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수준 중위 구(M=10.31, SD=3.01), 경제수준 하위 구(M=8.93, SD=2.28) 순으로 긍정적 인식이 높았다. 각 영역별로 살펴보면, 경제수준 상위 구의 경우 가정환경, 교육자원, 일·놀이·여가 영역 순으로 긍정적 인식이 높게 나타난 반면, 경제수준 중위 구의 경우 가정환경, 건강과사회서비스, 교육자원 영역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경제수준 하위 구의 경우 가정환경, 교육자원, 건강과사회서비스 영역 순으로 긍정적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세 지역의 부모 모두가 안전과보호 영역에 대해 가장 부정적으로 인식하였다.

도시 환경 전체 영역에 대한 인식에서 지역(F=50.00,  $p<.001$ )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Scheffe' 사후검증 결과 경제수준 상위 구 부모가 경제수준 하위 구 부모 보다 긍정적 인식이 높았다. 아동연령(F=89.80,  $p<.001$ )에 따라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사후검증결과 아동기 자녀를 둔 부모가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보다 긍정적 인식이 높았다. 지역과 아동연령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4> 부모의 거주지역과 아동연령에 따른 아동친화성에 대한 이원분산분석

구분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Scheffe'
가정 환경	지역	24.81	2	12.40	69.42***	a>c
	아동연령	.231	2	0.11	0.65	-
	지역×아동연령	3.82	4	0.95	4.02	
	오차	74.33	499	0.14		
	합계	2968.52	508			
건강과 사회 서비스	지역	13.99	2	6.99	28.05***	a>c
	아동연령	2.33	2	1.17	4.69**	a>c
	지역×아동연령	1.73	4	0.43	1.74	
	오차	103.76	499	0.20		
합계	1469.33	508				
교육자원	지역	16.07	2	8.03	24.15***	a>c
	아동연령	31.50	2	15.75	47.32***	a>c
	지역×아동연령	5.77	4	1.44	7.34**	
	오차	138.49	499	0.27		
	합계	1681.71	508			
안전과 보호	지역	23.14	2	11.57	31.85***	a=b>c
	아동연령	47.01	2	23.50	64.69***	b>c
	지역×아동연령	4.40	4	1.10	3.03	
	오차	151.15	499	0.30		
	합계	1178.25	508			
지역사회 유대 관계	지역	28.22	2	14.11	29.00***	a>c
	아동연령	5.53	2	2.76	5.68**	b>c
	지역×아동연령	3.93	4	0.98	2.02	
	오차	202.40	499	0.40		
	합계	1333.53	508			
일·놀이· 여가	지역	23.19	2	11.57	30.40***	a>c
	아동연령	3.91	1	3.91	10.26**	b>c
	지역×아동연령	3.21	2	1.60	6.89**	
	오차	126.27	405	0.25		
	합계	1174.98	411			
전체	지역	520.35	2	260.17	50.00***	a>c
	아동연령	1080.24	2	540.12	89.80***	b>c
	지역×아동연령	150.57	4	37.64	6.02	
	오차	2211.28	499	4.43		
	합계	50530.47	508			

\*\*p<.01, \*\*\*p<.001, 지역: a=경제수준 상위 구, b=경제수준 중위 구, c=경제수준 하위 구, 연령: a=영유아, b=아동, c=청소년

각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가정환경 영역은 지역(F=69.42, p<.001)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경제수준 상위 구 부모의 긍정적 인식이 경제수준 하위 구 부모의 인식 보다 높았다. 아동연령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지

역과 아동연령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도 나타나지 않았다.

건강과사회서비스 영역은 지역( $F=28.05, p<.001$ )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경제수준 상위 구 부모의 긍정적 인식이 경제수준 하위 구 부모의 인식 보다 높게 나타났다. 아동연령( $F=4.69, p<.01$ )에 따라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영유아기 부모의 긍정적 인식이 아동기 부모의 인식 보다 높았다. 즉, 지역사회 내 건강과 사회서비스가 영유아기 아동에게 보다 다양한 혜택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과 아동연령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교육자원 영역은, 지역( $F=24.15, p<.001$ )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경제수준 상위 구 부모의 긍정적 인식이 경제수준 하위 구 보다 높았다. 아동연령( $F=47.32, p<.001$ )에 따라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영유아기 부모의 긍정적 인식이 청소년기 부모 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과 아동연령( $F=7.34, p<.01$ )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도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경제수준 중·하위 구는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의 긍정적 인식이 가장 높았으나, 상위 구는 아동기 자녀를 둔 부모의 긍정적 인식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즉, 경제수준 상위 구 부모는 초등학교 아동을 위한 학교의 전반적인 여건이 가장 잘 조성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환경이 유아교육 기관이나 중·고등학교에 비해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안전과보호 영역은, 지역( $F=31.85, p<.001$ )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경제수준 상위 구와 중·하위 구와의 차이가 유의미하였다. 즉, 경제수준 상위 구 부모가 경제수준 중·하위 구 부모 보다 아동의 안전을 위한 환경과 보호를 위한 체계가 더 잘 조성되어 있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아동연령( $F=64.69, p<.001$ )에 따라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아동기 부모가 청소년기 부모 보다 긍정적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지역과 아동연령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지역사회유대관계 영역은, 지역( $F=29.00, p<.001$ )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경제수준 상위 구 부모의 긍정적 인식이 경제수준 하위 구 보다 높게 나타났다. 아동연령( $F=5.68, p<.01$ )에 따라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아동기 부모의 긍정적 인식이 청소년기 부모의 인식보다 높게 나타났다. 즉, 아동기 자녀를 둔 부모가 지역사회 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함을 알 수 있으며, 지역주민 간의 유대감 및 상호협력성이 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지역과 아동연령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일·놀이·여가 영역은 지역( $F=30.40, p<.001$ )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경제수준 상위 구와 하위 구와의 차이만이 유의미 하였다. 즉, 경제수준 상위 구 부모

가 경제수준 하위 구 부모 보다 아동의 놀이와 여가를 위한 공간 및 시설이 보다 잘 조성되어 있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아동연령( $F=10.26, p<.001$ )에 따라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아동기 부모가 청소년기 부모 보다 긍정적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지역과 아동연령( $F=6.89, p<.01$ )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도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경제수준 하위 구는 아동기 자녀를 둔 부모의 인식이 오히려 청소년기 부모 보다 긍정적 인식이 낮았으나, 상위 구는 아동기 자녀를 둔 부모의 긍정적 인식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경제수준 상위 구는 놀이와 여가의 욕구가 가장 큰 시기인 초등학교 아동을 위한 공간과 시설이 보다 잘 조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영역 간에 차이는 있지만 재정자립도와 생활환경 수준 그리고 아동의 연령은 부모의 아동 친화적인 도시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나타내는 주요 변인으로 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경제수준이 높고 아동 연령이 낮을수록 도시와 지역사회 환경에 대한 부모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수준이 높은 지역이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해 아동을 위한 생활환경 및 욕구가 더 잘 충족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연령이 낮은 아동을 위한 사회적 서비스가 보다 다양하고 풍부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교육자원과 일·놀이·여가 영역에서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는데 경제수준 중·하위 구와 다르게 경제수준 상위 구는 아동기 자녀를 둔 부모의 교육환경과 놀이 시설 및 공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높게 나타나 아동기에 꼭 필요한 사회적·물리적 환경이 보다 잘 조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3. 아동 친화적인 도시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인식

도시 환경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전체 인식 점수는 1.40점(전체 8.40/6=1.40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 내 전문가인 사회복지사가 아동이 생활하는 도시 환경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한다고 볼 수 있는 ‘대체로 그렇다’인 2점을 기준으로 볼 때 비교적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즉, 아동 친화적인 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각 하위 영역별로 살펴보면, 가정환경 영역( $M=2.26$ 점)을 가장 긍정적으로 인식하였으며, 교육지원( $M=1.90$ )영역, 일·놀이·여가( $M=1.69$ )영역, 건강과사회서비스( $M=1.68$ )영역, 안전과보호( $M=1.50$ )영역 순으로 긍정적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지역사회 유대관계( $M=1.46$ )영역을 가장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역사회 내 전문가집단인 사회복지사들은 아동이 생활하는 주거공간과 집 주변 물리적 환경이 가장 잘 조성되어 있다고 생각한 반면, 지역사회 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의 참여 및 노

력, 지역주민간의 유대감, 지역주민의 아동의 권리를 존중 하는 태도,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지역주민의 참여활동 등이 가장 부족하다고 인식하였다.

<표 5> 사회복지사의 활동지역 및 아동연령에 따른 평균과 표준편차

구분			가정환경	건강과 사회 서비스	교육자원	안전과 보호	지역사회 유대관계	일·놀이· 여가	합계
지역	아동연령	N	M(SD)	M(SD)	M(SD)	M(SD)	M(SD)	M(SD)	M(SD)
경제수준 상위구 (a)	영유아(a)	38	2.66(0.27)	2.63(0.26)	2.33(0.18)	1.75(0.22)	2.21(0.51)	2.06(0.61)	12.26(0.94)
	아동(b)	38	2.57(0.30)	2.01(0.36)	2.67(0.21)	1.89(0.16)	1.88(0.45)	2.39(0.47)	11.08(0.98)
	청소년(c)	38	2.54(0.29)	1.90(0.27)	2.00(0.22)	2.01(0.14)	1.83(0.47)	1.97(0.50)	10.63(0.87)
	합계	114	2.56(0.29)	2.06(0.30)	2.21(0.18)	1.89(0.13)	1.88(0.46)	2.18(0.49)	11.08(1.11)
경제수준 중위구 (b)	영유아(a)	39	2.31(0.49)	2.27(0.59)	2.44(0.35)	1.36(0.51)	1.81(0.66)	1.63(0.74)	10.46(2.36)
	아동(b)	39	2.24(0.47)	1.63(0.53)	2.12(0.34)	1.49(0.52)	1.43(0.74)	1.90(0.71)	9.22(2.36)
	청소년(c)	39	2.21(0.46)	1.52(0.52)	1.81(0.36)	1.57(0.54)	1.35(0.78)	1.60(0.67)	8.73(2.45)
	합계	117	2.23(0.46)	1.68(0.52)	2.00(0.35)	1.49(0.50)	1.43(0.75)	1.74(0.70)	9.24(2.44)
경제수준 하위구 (c)	영유아(a)	37	2.07(0.42)	1.97(0.57)	2.23(0.34)	1.06(0.38)	1.53(0.66)	1.39(0.77)	9.09(2.02)
	아동(b)	37	2.02(0.42)	1.34(0.41)	1.91(0.33)	1.15(0.43)	1.11(0.72)	1.64(0.75)	7.81(1.98)
	청소년(c)	37	1.99(0.41)	1.14(0.42)	1.57(0.34)	1.20(0.47)	1.02(0.76)	1.35(0.71)	7.16(2.09)
	합계	111	2.02(0.41)	1.35(0.42)	1.77(0.29)	1.15(0.41)	1.11(0.72)	1.49(0.73)	7.78(2.12)
합계	영유아(a)	114	2.34(0.47)	2.28(0.56)	2.44(0.34)	1.39(0.48)	1.84(0.66)	1.68(0.76)	10.57(2.27)
	아동(b)	114	2.28(0.47)	1.65(0.51)	2.12(0.33)	1.50(0.50)	1.46(0.72)	1.97(0.72)	9.34(2.29)
	청소년(c)	114	2.25(0.45)	1.51(0.52)	1.79(0.34)	1.58(0.53)	1.39(0.76)	1.63(0.68)	8.15(2.38)
	합계	342	2.26(0.45)	1.68(0.51)	1.90(0.33)	1.50(0.48)	1.46(0.72)	1.69(0.70)	8.40(2.39)

#### 4. 지역과 아동연령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인식

사회복지사의 지역 및 아동연령에 따른 이원분산분석 결과는 <표 6>과 같다. 경제수준 상위 구(M=11.08, SD=1.11)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가 지역 내 아동을 위한 환경에 대해 가장 긍정적으로 인식하였으며, 경제수준 중위 구(M=9.24, SD=2.44), 경제수준 하위 구(M=7.78, SD=2.12) 순으로 긍정적 인식이 높았다. 각 영역별로 살펴보면, 경제수준 상·중·하위 구 모두 가정환경, 교육자원, 일·놀이·여가, 건강과사회서비스, 안전과보호, 지역사회유대관계 영역 순으로 긍정적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도시 환경 전체 영역에 대한 인식에서 지역(F=113.11,  $p<.001$ )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Scheffe' 사후검증 결과 경제수준 상위 구 사회복지사의 긍정적 인식이 경제수준 하위 구 사회복지사 인식 보다 높았다. 아동연령(F=13.56,  $p<.001$ )에 따라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사후검증 결과 아동 집단에 대한 긍정적 인식

이 청소년 집단 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과 아동연령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6> 사회복지사의 활동지역과 아동연령에 따른 아동 친화성에 대한 이원분산분석

구분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Scheffe'
가정 환경	지역	22.26	2	11.13	68.65***	a>c
	아동연령	0.80	4	0.20	1.24	-
	지역×아동연령	0.06	8	0.00	0.50	
	오차	56.17	336	0.16		
	합계	2406.08	342			
건강과사회서비스	지역	37.43	2	18.71	95.34***	a=b=c
	아동연령	36.56	4	9.14	46.57***	a>c
	지역×아동연령	0.20	8	0.02	0.13	
	오차	85.40	336	0.25		
	합계	1494.13	342			
교육 자원	지역	14.58	2	7.29	83.57***	a>c
	아동연령	25.86	4	6.46	74.08***	a>b
	지역×아동연령	0.04	8	0.00	2.28***	
	오차	37.96	336	0.11		
	합계	1963.75	342			
안전과보호	지역	39.76	2	19.88	125.29***	a=b=c
	아동연령	2.06	4	0.51	2.24	-
	지역×아동연령	0.21	8	0.02	0.17	
	오차	69.02	336	0.20		
	합계	1111.00	342			
지역사회유대관계	지역	44.12	2	22.06	51.14***	a=b=c
	아동연령	12.54	4	3.13	7.27***	b>c
	지역×아동연령	0.16	8	0.02	0.05	
	오차	187.65	336	0.55		
	합계	1274.231	342			
일·놀이·여가	지역	36.16	2	18.08	41.70***	a>c
	아동연령	10.37	4	2.59	5.98***	b>c
	지역×아동연령	0.22	8	0.02	0.07	
	오차	188.58	336	0.56		
	합계	1657.36	342			
전체	지역	816.80	2	408.40	113.11***	a>c
	아동연령	195.94	4	48.99	13.56***	b>c
	지역×아동연령	1.23	8	0.15	0.04	
	오차	1570.52	336	44.85		
	합계	41802.14	342			

\*\*\*p<001, 지역: a=경제수준 상위 구, b=경제수준 중위 구, c=경제수준 하위 구/

연령: a=영유아, b=아동, c=청소년

각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가정환경 영역은 지역( $F=68.65, p<.001$ )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경제수준 상위 구 사회복지사의 긍정적 인식이 하위 구 보다 높았다. 아동연령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지역과 아동연령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도 나타나지 않았다.

건강과사회서비스 영역은 지역( $F=95.34, p<.001$ )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경제수준 상위 구 사회복지사의 긍정적 인식이 경제수준 중·하위 구 사회복지사의 인식 보다 높게 나타났다. 아동연령( $F=46.57, p<.001$ )에 따라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청소년 집단 보다 영유아 집단을 위한 건강과사회서비스가 보다 잘 갖추어져 있다고 인식하였다. 그러나 지역과 아동연령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교육자원 영역은 지역( $F=83.57, p<.001$ )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경제수준 상위 구 사회복지사의 긍정적 인식이 경제수준 하위 구 보다 높게 나타났다. 아동연령( $F=74.08, p<.001$ )에 따라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아동 집단 보다 영유아 집단을 위한 교육자원이 보다 잘 갖추어져 있다고 인식하였다. 지역과 아동연령( $F=2.28, p<.001$ )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도 나타났으며, 경제수준 중·하위 구 사회복지사는 영유아 집단을 위한 교육자원이 잘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한 반면, 경제수준 상위 구 사회복지사는 아동 집단을 위한 교육자원이 가장 잘 구성되어 있다고 인식하였다. 즉, 경제수준 상위 구 사회복지사들은 영유아 집단 보다 아동 집단을 위한 교육자원이 보다 잘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안전과보호 영역은 지역( $F=125.29, p<.001$ )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경제수준 상위 구 사회복지사의 긍정적 인식이 경제수준 중·하위 구 사회복지사의 인식 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아동연령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지역과 아동연령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지역사회유대관계 영역은 지역( $F=51.14, p<.001$ )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경제수준 상위 구 사회복지사의 긍정적 인식이 경제수준 중·하위 구 사회복지사의 인식 보다 높게 나타났다. 아동연령( $F=7.27, p<.001$ )에 따라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아동 집단이 청소년 집단 보다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유대감이 높으며, 지역사회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한다고 인식하였다. 그러나 지역과 아동연령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일·놀이·여가 영역은 지역( $F=41.70, p<.001$ )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경제수준 상위 구 사회복지사의 긍정적 인식이 경제수준 하위 구 사회복지사의 인식



보다 높게 나타났다. 아동연령( $F=5.98, p<.001$ )에 따라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청소년 집단 보다 아동 집단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높았다. 즉, 아동을 위한 놀이 공간이 보다 풍부하며 아동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간도 보다 여유롭다고 인식하였다. 그러나 지역과 아동연령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영역 간에 차이는 있지만 재정자립도와 생활환경 수준 그리고 아동의 연령은 사회복지사의 아동 친화적인 도시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나타내는 주요 변인으로 볼 수 있다. 부모 집단과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경제수준이 높고 아동 연령이 낮을수록 아동의 성장·발달을 위한 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고 아동의 욕구가 더 잘 충족된다고 인식하였다. 영역별로 살펴보면, 주거환경과 집 주변의 물리적 환경인 가정환경 영역이 가장 아동 친화적인 특성을 보인다고 인식한 반면 지역주민의 참여활동, 아동권리를 존중하는 태도, 아동을 위한 지역사회환경개선을 위한 의지 등 지역사회 유대관계 영역을 가장 부정적으로 인식하였다.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도시와 지역사회 환경이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아동 친화적인 도시를 조성하는데 가장 강력한 옹호자가 될 수 있는 부모와 사회복지사의 인식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내용과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시 3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부모들은 전체적으로 자신의 자녀들이 생활하는 지역사회 환경의 아동 친화성에 대해 비교적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부모의 관점에서 볼 때 자녀의 성장·발달을 최대한 이끌어 낼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가정환경, 교육자원, 건강과사회서비스, 일·놀이·여가를 위한 환경 조성과 서비스 지원은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식한 반면, 지역주민간의 유대감이나 지역주민의 참여활동이 부족하며 안전과 보호를 위한 체계가 가장 미흡하다고 생각하였다. 실제로 아동이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대처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은 부모들의 신념에 크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으며, 부모들의 이웃과의 사회적 관계망은 아동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어 지역사회 환경에 대한 부모의 인식은 아동의 일상생활 활동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인으로 볼 수 있다(Alparone et al., 2003; Hillman, 1997;

Sauvage & Gauvain, 1998; ). 따라서 도시와 지역사회 내에서 아동을 독립적이고 역량을 갖춘 성인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이웃주민 간의 신뢰를 형성하고 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며, 안전과 보호 체계 확립을 통해 부모의 불안과 두려움을 해소시킬 수 있는 노력이 매우 절실하며 시급함을 알 수 있다.

둘째, 전체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높고 생활환경 수준이 높은 경제수준 상위 구에 거주하는 부모가 경제수준 하위 구에 거주하는 부모 보다 도시환경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였으며, 아동기 부모가 청소년기 부모 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즉, 재정자립도와 생활환경 수준이 높은 지역일수록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아동을 위한 생활환경 및 욕구가 더 잘 충족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보다 아동 친화적인 지역사회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열악한 환경에 사는 아동은 자원이 풍부한 지역에 사는 아동에 비해 교통사고로 인해 다칠 위험이 5배가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며, 지역사회 자원이 부족한 곳에 사는 아동과 가족들은 더욱 위험한 주거 환경과 교통 체계에서 사는 경향이 있고, 안전한 놀이 공간이 부족하며, 도로 위를 더 많이 걸어 다니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Roberts & Power 1996; Roberts, Norton & Taua, 1996; Wazana et al., 1997).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와 자치구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생활환경의 격차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맹다미, 2009; 이재원; 2006; 서승환, 2005). 이에 따라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출산장려금, 셋째 자녀 지원 등 아동에게 지원되는 서비스의 양과 질에서도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즉, 지방정부의 여건과 상황에 따라 아동이 지원받는 서비스에서도 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경제수준 하위 구에 거주하는 아동기 자녀를 둔 부모들은 일·놀이·여가 영역에서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나타냈는데, 이는 놀이시설에 대한 욕구가 큰 아동을 위한 시설과 환경이 매우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다. 이는 주목할만한 결과로서 공원과 같은 자연환경이나 문화시설은 소득계층에 상관없이 자녀양육을 위해 꼭 필요한 기반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공원, 문화, 놀이시설이 유료화되고 있어 빈곤가정 및 저소득층 가정은 시설 이용 자체가 제한받고 있는 실정이다(곽은숙·정미라, 2007). 실제로 저소득층의 문화시설 이용률이 낮은 이유는 요금부담과 접근성의 문제를 들고 있으며, 가까운 거리에 공공시설과 문화공간의 부족도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곽은숙 외, 2007; 이병대·동재욱 2005; 이정희 외 1990; 허진욱 외 1997). 따라서 지역주민이 협력하여 학교 운동장을 개방하거나, 종교 단체의 문화시설을 활용하거나, 자치구 문화시설을 이용하는 등 최대한 아동이 처한 상황에 상관없이 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지역사회 차원에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셋째, 지역사회 전문가 집단인 사회복지사는 아동이 생활하는 도시 환경에 대해 부모 집단 보다 더욱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영역별로 살펴보면, 가정환경, 교육 자원, 건강과사회서비스, 일·놀이·여가를 위한 환경 조성 및 서비스 지원은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식한 반면, 지역사회 유대관계가 가장 부족하다고 인식하였다. 즉, 사회복지사는 아동 친화적인 도시를 위한 요소 중 지역주민간의 신뢰감 및 유대감 형성과 지역사회 개선을 위한 주민의 참여활동과 의지, 아동권리를 존중하는 태도가 가장 미흡하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이는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고 있는 전문가가 평가한 것으로 서울시 지역주민은 가족과 친구에 대한 신뢰도(84.8%)는 높은 반면 이웃에 대한 신뢰도는 낮은 수준(48.9%)로 나타난 결과와도 일치한다(조권중, 2010). 또한 아동의 성장 발달 과정에서 이웃주민과의 교류는 중요한 요소임이 연구결과를 통해 밝혀졌다(Huttenmoser, 1995; Prezza et al, 2001). 즉, 이웃과의 교류와 네트워크는 아동이 지역사회를 자유롭게 탐색하는데 영향을 미치며 아동이 혼자 활동하는데도 큰 영향을 미친다(Prezza et al, 2001). 따라서 지역사회 유대관계는 도시의 물리적 환경만큼 아동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소임으로 사회복지사가 지역 주민간의 응집력, 자조능력, 협동력을 높일 수 있는 조력자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넷째, 전체적으로 부모 집단과 마찬가지로 경제수준 상위 구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가 경제수준 하위 구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보다 도시 환경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었다. 즉, 전문가가 판단할 때도 경제수준 상위 구가 아동을 위한 물리적·사회적 환경이 보다 잘 조성되어 있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또한 청소년 집단 보다 아동 집단을 위한 사회적·물리적 환경과 서비스 지원이 보다 잘 조성되어 있다고 인식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전술한 바와 같이 자치구의 재정자립도와 생활환경 차이에 따라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물리적 환경도 많이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섯째, 아동 친화적인 도시 환경에 대한 집단 간 인식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아동과 청소년의 인식을 조사한 연구결과와 부모 및 사회복지사의 인식을 조사한 연구결과를 종합해서 비교해보면<sup>3)</sup> 부모의 긍정적 인식이 가장 높았으며, 사회복지사, 아동, 청소년 순으로 나타났다(홍승애·이재연, 2011). 즉, 부모집단이 지역사회 아동 친화성에 대해 가장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청소년이 가장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모든 집단이 가정환경 영역이 가장 잘 조성

3) 아동, 청소년, 부모, 사회복지사 집단 간의 자료를 비교하기 위해 부모와 사회복지사 집단에만 해당되는 '건강과사회서비스' 영역을 제외하였으며, '일·놀이·여가 영역'이 제외되어 있는 영유아부모 집단의 응답을 제외하여 총 5개 영역의 60개 공통문항을 재구성하여 분석하였다.

되어 있다고 인식하였으며, 아동, 청소년, 사회복지사는 일·놀이·여가, 지역사회유대관계 영역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였으나 부모는 안전과보호 영역에 대해 가장 부정적으로 인식하였다. 이는 부모는 아동을 양육과 보호의 대상으로만 여기고 아동의 자율적이고 자기결정권 측면에 대해서 덜 고려하고 있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이재연·이소라, 1998). 이에 따라 부모와 같은 성인의 의견만이 반영되어 아동의 관점과 욕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정책의 희생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지역사회 내 전문가 집단인 사회복지사는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동, 청소년의 의견과 일치한 결과는 매우 고무적인 측면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아동의 권리를 강력하게 옹호할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유니세프(2009)의 필리핀 칼라얀(Kalayaan)시의 예비조사 결과에서는, 지역의 사회복지사가 모든 영역에서 부모와 아동·청소년 보다 부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즉, 전문지식이 없는 부모 보다 아동발달과 사회 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사가 훨씬 지역사회 자원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사는 지방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영향력을 발휘하여 정책의 우선순위를 바꾸어 나가는 역할을 담당하였다(UNICEF, 2009). 이처럼 아동 최우선의 원칙이 반영된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아동과 청소년의 의견반영을 기본으로 아동의 권리를 강력하게 옹호해줄 수 있는 각계각층의 전문가 집단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 친화적인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국가, 지역사회, 가정에서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는 가치 형성이 우선시 되어야 하며, 모든 정책결정 과정은 아동 최우선의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 국가와 도시 그리고 지역사회 이웃주민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권리 존중과 보호, 책임감 그리고 긍정적인 관심과 배려는 CCTV와 같은 일차원적인 물리적 환경 보다 훨씬 강력한 보호체계가 될 수 있다.

둘째, 종합적인 도시계획으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아동영향평가를 통한 정확한 분석 아래 각 분야의 전문가가 상호 협력해야 한다. 위의 연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동과 성인의 관점은 상이할 수 있다. 따라서 아동, 청소년, 부모, 사회복지사, 공무원, 정책 입안자, 도시 행정가, 조경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가 모두 모여 도시 공간을 새롭게 재창조해야 한다. 아동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는 결국 성인이 살기에 도 좋은 도시가 되는 것이다(이재연 외, 2008).

아이들에겐 마을이 필요하다(It takes a Village). 어떤 가정도 고립된 섬이 아니며,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서는 온 마을의 자원과 지원이 필요한 것이다(Clinton, 1996). 아

동 양육의 책임을 각 가정으로 국한하지 말고 지역사회, 지방정부, 중앙정부 전체가 협력하여 아동의 성장·발달을 최대한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아동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곽은숙·정미라(2007). 저소득층 아동의 주거환경.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지**, 18(3): 149-505.
- 김선자·김경혜(2008). **서울시 고령친화도 평가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김영진·김영환·김영선(2007). 초등학생의 놀이 활동 실태 및 요구분석, **교과교육학연구**, 11(1): 121~141.
- 맹다미(2009). 지표로 본 서울시 도시공간특성에 관한 연구: 생활환경 격차 분석을 중심으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서승환(2005). 서울시 자치구별 생활환경의 질에 관한 비교분석. **서울도시연구**, 6(2): 21~36.
- 이수정 역(1996). **집 밖에서 더 잘 크는 아이들**. Hillary Rodham Clinton. It Takes a Village. 서울:디자인하우스.
- 이재연·강성희(1997). 권리에 대한 아동의 인식. **아동권리연구**, 1(1): 65~83.
- 이재연·이소라(1998). 아동의 권리에 대한 아동·부모·교사의 인식. **아동권리연구**, 2(1): 25-41.
- 이재연·황옥경·이은주(2008). **아동·청소년이 행복한 서울 꿈나무 프로젝트**. 서울: 서울시복지재단.
- 이재연·황옥경·권영임·최창욱(2010). **제 2기 서울 꿈나무 프로젝트**. 서울: 서울시청소년수련시설협회.
- 이재원(2006). 서울시 자치구간 지역불균형 특성분석 연구. 경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정희·김성균·최목화(1990). 대전지역 저소득층 주거환경의 질적인 개선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8(2): 57-72.
- 이병대·동재욱(2005). 도시 저소득층 불량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발전학회논문집**, 30(2): 91-103.
- 조권중(2010). **서울의 사회적 자본:현황과 정책과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최성은·우석진(2009). **보육지원정책의 적정성 및 효과성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

회재정평가센터.

- 허진욱·정진원·민선주·조병수(1997).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대한건축학회학술발표논문집**, 17(1): 35-41.
- 홍승애·이재연(2011). 아동 친화적인 도시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인식. **아동학회지**, 32(2): 53-70.
- Alparone, F. R., Prezza, M., Tucci, F., and De Ruosi, A. M.(2003). Crescere in citta. Come I genitori Percepiscono il rischio e l'insicurezza urbana per I bambini. In B. Zani (ed.), *Sentirsi in/Sentirsi in citta*. 71-100. Bologna: Il Mulino.
- Chawla, L. (2002). Growing up in an urbanising world. Lodon: Earthscan.
- Hillman, M. and Tisdall, K. (1997). *Children and Society*, London: Longman.
- Huttenmoser(1995). Children and their living surroundings: empirical investigations. *Childrne's Environment*, 12(4): 403-413.
- Lang, M., and Deitz, S. (1990). Creating enviornments that facilitate independence: the hidden dependency trap. *Children's Environments Quarterly*, 7(3): 2-6.
- Peddie, B. and Somerville, C. (2005). The ghost of TOD's past: schools reconnecting, paper presented at the Transit Oriented Development Conference, Fremantle, 2-8 July.
- Malone, K. (2007). The bubble-wrap generation: children growing up in walled gardens. *Environmental Education Research*, 13(4): 513-527.
- Marco Corsi(2002). The child friendly cities initiative in Italy. *Environment and Urbanization*, 14(2). 169-179.
- Prezza, M., Piloni, S., Morabito, C., Alparone, F. R., and Giuliani, M. V. (2001). The influence of psychosocial and environmental factors on children's independent mobility and relationship to peer frequentation. *Journal of Commuinty and Applied Social Psychology*, 11: 435-450.
- Riggio, E. (2002). Child Friendly Cities, *Environment & Urbanization*, 14(2): 45-58.
- Robert, I., and Power, C. (1996). Does the decline in child injury mortality vary by social class? A comparison of class specific mortality in 1981 and 1991. *British Medical Journal*, 313: 784-786.
- Robert, I., Norton, R and Tuua, B. (1996). Child pedestrian injury rates: the importance of "exposure to risk" relating to socioeconomic and ethnic difference, in Auckland, New Zealand. *Journal of Epidemiology and Community Health*, 50: 162-165.

- Sauvage, S.L., and Gauvain, M. (1998). Parental belief and children's everyday planning in European-Americans and Latino families.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19* 319-340.
- Tranter, P. J., and Pawson, E. (2001). Children's access to local environments: a case-study of Christchurch, *New Zealand, Local Environment, 6*(1): 27-48.
- Tranter, P. J (2006). Overcoming social traps: a key to creating child friendly cities, in: B. Gleeson & N. Snipe (Eds) *Creating Child-Friendly Cities: reinstating kids in the city*. London, Taylor & Francis.
- UNICEF(1996). *Toward Child Friendly Cities*. New York: UNICEF Publication.
- UNICEF(1999). *Cities for Children*. London: Earthscan
- UNICEF(2001). *Partnership to Create Child Friendly Cities: Programming for Child Rights with Local Authorities*. New York: UNICEF/IULA.
- UNICEF(2005a). *Cities with children: Child friendly cities in Italy*. Innocenti Research Centre: Florence.
- UNICEF(2005b). *Making Philippine Cities Child Friendly*. UNICEF Innocenti Center: Florence.
- UNICEF(2009). *The Philippine Pilot Study of the Child Friendly Community Participatory Assessment Tools*. UNICEF Innocenti Center: Florence.
- UNICEF(2010). *Child Friendly Community Assessment A Facilitator's Guide*. UNICEF Innocenti Center: Florence.
- Wazan, A., Kreuger, P., Raina, P. and Chambers L. (1997). A review of risk factors for child pedestrian injury rates: Are they modifiable?, *Injury Prevention, 3*: 295-304.

- 논문접수 2011년 3월 31일 / 수정본 접수 6월 6일 / 게재 승인 6월 27일
- 교신저자: 홍승애,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박사과정, [hsa6423@hanmail.net](mailto:hsa6423@hanmail.net)

## Abstract

### Parents and Community service provider's assessment of Child Friendly Cities

Hong, Seung Ae    Lee, Jae Yeon

Child Friendly Cities(CFC) is a framework for action with the aim of implementing the UN CRC led by local government in an urban context. Surveys with 508 parents and 114 community service provider were conducted to assess the community's child-friendliness in Seoul.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Parents and community service provider assessed negatively comprehensive assessment of the city's child-friendliness. 2) Parents and community service provider living in rich community were assessed more positively than living in poor community about the city's child-friendliness. 3) Parents were assessed more positively than community service provider, children and adolescents about the city's child-friendliness. This study suggested that a local action plan for the Child Friendly Cities must be implemented to fulfill the CFC standards.

Key words: Child Friendly Cities, Child Friendly communities, Children's Rights, Urbanization